

국토부 장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 인프라 협력 강화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

-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인프라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및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호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9일(목)부터 20일(금)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나이지리아(아부자)를 방문하여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간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 등을 계기로 해외를 방문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진행해 온 원 장관이 이번에는 유치 교섭을 위해 나이지리아에 방문한다.
- 원 장관은 나이지리아 최고위급(대통령 또는 부통령 등) 등을 만나 지난 G20 계기로 개최되었던 한-나 정상회담(9.9, 인도 뉴델리)에 대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1980년 수교 이래 구축해 온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 특히, 나이지리아는 석유·천연가스 등 다량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며, 대우건설이 약 5조원 규모의 LNG Train 7 플랜트 사업을 공동 수주하는 등 우리 기업이 활발히 활동 중인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 (석유) 매장량 세계 11위 /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0위 / (광물) 석탄, 철광석 등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내 우리 기업 최대의 해외 건설 수주 국가로서, 앞으로도 인프라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 투표일까지 40여일이 남은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마지막 날까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재평 (044-201-3804)
	교통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미리 (044-201-3788)

□ 방문 개요

- (일시/장소) 10.19(목) ~ 20(금) / 나이지리아 아부자
- (대표단) 국토부 장관(대통령 특사, 수석 대표), 교통물류실장 등 국토부 11인, 해외건설협회장, 대우건설 사장 등 총 16인
- (주요 활동)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인프라·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

□ 주요 일정 ※ 면담자 및 시간은 나이지리아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① (최고위급 면담) 티누부 대통령 또는 세티마 부통령, 아바스 하원의장 등 면담

- (일시/장소) 10.19(목)~20일(금) / 나이지리아 정부, 의회
- (의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에너지, 정유소 등 인프라, 무역·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방안

② (고위급 면담) 아쿠메 연방장관, 아니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둔 재무부 장관 등 면담

- (일시/장소) 10.19(목)~20일(금) / 나이지리아 정부
- (의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에너지, 인프라, 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등 논의